

“수강신청 10만원에 팔아요”...대학생 사재기·거래 ‘성행’

전공·인기강의 ‘돈벌이’ 이용...사재기 속출에 학생들 잇단 피해 전남대생 530명 설문...10명 중 3명 “강의 거래 해봤고 목격했다” 전남대 총학 “거래 멈춰달라”...학생들 “과목·수강인원 늘려줘야”

광주-전남 대학가에서 새학기를 앞두고 수강신청 기간이 시작되자 ‘강의 거래’도 덩달아 판을 치고 있다.
강의 거래는 미리 수강신청 해 둔 특정 강의를 다른 학생에게 돈을 받고 양도하는 행위로, 일부 전공 강의나 인기 강의에 수강 신청이 몰리는 것을 악용해 ‘돈벌이’를 하는 것이다.
돈벌이를 위해 일부러 특정 강의를 ‘사재기’하는 사례가 속출하면서 정작 강의를 필수로 들어야 하는 학생들이 울며 겨자먹기로 비싼 돈을 주고 강의를 구입하는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전남대학교 총학생회 ‘중심’ (이하 전대 총학)은 지난 9일 전남대 에브리타임(학생 게시판)에 공지

문을 올리고 “강의 거래를 멈춰달라”고 호소했다. 전대총학은 학교측의 요청을 받고 해당 글을 올렸다고 한다.
전대 총학은 공지문을 통해 “최근 들어 당장 졸업에 필수적인 과목이 아니더라도 원하는 교양 과목을 구매하려는 시도가 늘어나고 있다”며 “강의 거래 사례가 늘고, 인기 과목의 수요가 높아지면 가격도 비싸질 것이며 사기 피해도 늘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최근 전남대 학생들만 이용하는 익명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는 강의의 사교파는 학생들의 게시글이 수십건 올라왔다.
전남대는 지난 4일부터 학년별로 수강신청을 시작해 10-11일 전학년 공통 수강신청을 받고 있는



전남대 ‘에브리타임’에 올라온 강의 거래 게시글. 데, 이 기간 동안 기다렸다는 듯 강의 거래 게시글이 쏟아지고 있었다.
자유게시판, 비밀게시판 등지에는 ‘생활영어 29분반 팔아요’, ‘채권총론 팔아요’ 등 게시글이 잇따라 올라왔고, 아예 강의들을 사재기한 듯 ‘이러닝 교양선택 강의 3개 팔아요’라는 제목의 글도 올라

왔다. 반대로 ‘생활영어1 사요’, ‘생물실험2 4분반 사요’, ‘여행의세계 팔아주세요’ 등 강의를 팔아달라는 글도 수십건 게시됐다.
10일 에브리타임 게시판에는 오전에만 20여개가 넘는 강의 거래 게시글이 올라왔다. 거래 이후 증거인멸을 위해 게시글을 지워버리는 경우도 있어 실제 거래 사례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전대 총학 관계자에 따르면 강의 거래는 판매자와 구매자가 PC방 등에서 만난 뒤, 판매자가 수강 취소 신청을 하는 즉시 구매자가 수강 신청을 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전대 총학이 지난 1월 전남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 530명 중 179명(33.8%)이 강의 거래를 하거나 목격한 적 있다고 답했다. 또한 이 중 10명은 실제 강의 거래를 해 본 적도 있다고 응답했다.
거래 가격은 1만~5만원대가 가장 많으며, 인기 강의의 경우 10만원을 넘는 가격으로 거래되기도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남대는 학칙에 학생 간 수업 매매 행위를 금지하

며 징계 대상이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해당 수업 수강내역 삭제, 수강신청 시스템 접속장애 지연, 학점 이월대상 제외 등 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실제로 징계를 받은 사례는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 커뮤니티를 이용해 음지에서 거래가 이뤄지는 터라 거래 행위를 일일이 적발하고 징계를 내리기에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이런 사례는 전남대만의 문제는 아니라 지역 대학가에서 공공연한 비밀이라고 학생들을 입을 모은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학교 측에서 수강 가능 인원을 턱없이 적게 설정해 수요가 몰려 강의 거래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강의 거래하면 혼란스럽고 하기 전에 강의 수나 수강 가능 인원부터 늘려줘야 한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전대 총학 관계자는 “에브리타임 게시글만으로는 거래자가 누구인지 특정하기 어렵지만, 지속적으로 제보를 받고 거래 행위자를 추적 중이다”며 “강의 거래를 막을 수 있는 새 수강신청 시스템을 도입하도록 학교에 건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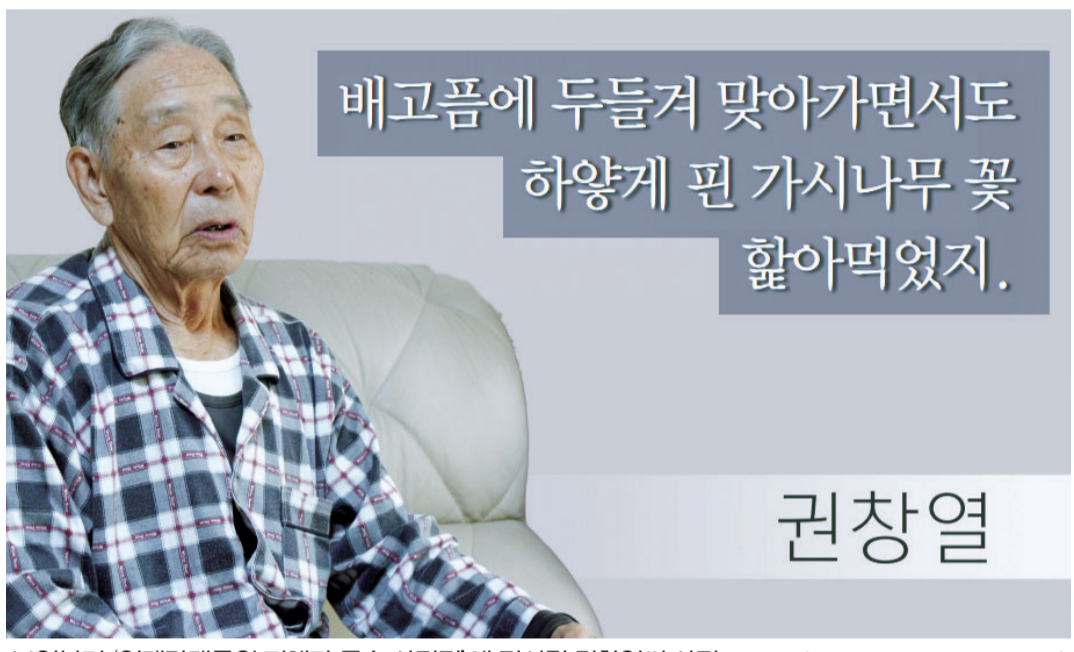
AI로 교통사고 과실 따진다

지스트 연구팀, 블랙박스 영상 분석·평가 기술 개발

지스트(광주과학기술원·총장 임기철)는 기계공학부 이용구 교수 연구팀이 인공지능(AI) 기술로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해 교통사고 과실 비율을 평가하는 데 성공했다.
10일 지스트에 따르면 연구팀은 블랙박스에 찍힌 사고 영상 1200건을 분석해 인공지능 네트워크에 학습시키고 교통사고 과실을 평가하는 기술을 개발했다.
연구팀은 블랙박스 영상은 사고 상황에 대한 정보를 수록하고 있으므로 주관적 관점이 없는 인공지능이 사고 과실을 평가하면 가장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할 것이라는 점을 주목했다.
사고 영상을 분석하려면 차도, 차선과 같은 ‘공간 정보’와 사고 차량의 움직임과 같은 ‘시간 정보’를 동시에 분석해야 하는데, 연구팀은 동시 분석이 가능한 3D CNN(Convolutional Neural Networks) 기술을 활용했다.
연구팀은 사고 관련 정보를 시간에 따라 누적한 후, 누적된 정보를 분석해 최종 사고 과실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기술을 개발했다.



이용구 교수는 “인공지능이 인식을 넘어 법률적 판단을 하는 시대가 올 것이며, 인간은 인공지능 공정성과 투명성을 유지하지 위해 고민해야 할 것”이라며 “인력에 의존하는 사고 심의를 자동화하는 데 활용할 수 있고 소요 시간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 교수가 주도하고 이성재 박사과정생이 참여한 이번 연구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정보통신기획평가원 등의 지원을 받아 수행됐다.
연구성과는 국제학술지인 JCDE (Journal of Computational Design and Engineering)에 지난달 게재됐다. /윤영기 기자 penfoot@



일제 강제노역 피해자 구술 사진전

시민모임, 14~25일 시청 시민홀...위안부 3명 등 34명 사연 담아

광주 78주년을 맞아 일제강점기 전범기업들에게 끌려가 강제노역에 동원된 피해자들의 첫 사진전이 열린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시민모임)은 오는 14일부터 25일까지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시청 시민홀 전시공간에서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구술 사진전’을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사진전의 주제는 ‘배고픔에 두들겨 맞아가면서도 하얗게 핀 가시나무 꽃 활아먹었지’다.
총 31명의 일제강제동원 피해자와 3명의 일본군 위안부피해자의 사진과 사연이 전시될 예정이다.
시민모임은 지난 2018년부터 2019년까지 광주시의 지원을 받아 광주-전남지역 일제강제동원 생존 피해자 31명을 만나 지난 2021년 구술집을 발간했다.
이후 구술집을 토대로 31명의 피해자의 사진과 이야기를 담은 사진전을 개최하게 된 것이다. 사진전에는 광주-전남 지역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3명의 이야기도 함께 전시된다.
시민모임 관계자는 “강제동원 피해자의 이야기에 공감하고 헌민족의 아픈 역사를 기억해달라”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jang@kwangju.co.kr

“감사관 채용비리 시교육청 수사”

광주시민·교사단체
광주시교육청의 감사관 채용 과정에서 인사 담당자가 개입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로 드러나자 지역 시민·교사단체가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10일 성명에서 “시교육감은 대시민 사과와 물론, 자신수사를 받아 채용비리에 대해 밝히고 교육수장으로서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라”고 촉구했다.
광주교사노동조합도 이날 성명을 내 “교육청 채용 절차에서 나온 부정행위로 교육기관의 신뢰를 회복할 수 없는 지경으로 떨어뜨렸다”며 “인사담당 사무관이 책임질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감사원은 광주교사노조의 공익감사 청구에 따라 감사를 벌였으며 인사담당자 A씨가 개방형직위인 교육청 감사관 채용과정에서 심사위원들에게 언질을 줘 면접 순위가 바뀌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광주시교육청은 “이번 사안은 인사 담당자 개인의 처신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면서 “면접 점수를 수정한 당사자는 심사위원이기 때문에 ‘점수 조작’이라는 일각의 주장은 무리가 있다”고 밝혔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광주일보 71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광주시교육청 인사

광주시교육청이 박철신 신임 정책국장 등 교육공무원 189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시교육청은 다음달 1일자로 유지원 12명, 초등 67명, 중등 61명, 교육전문직원 49명 등 교육공무원 189명에 대한 인사를 시행했다고 10일

밝혔다. <명단 20면>
정책국장은 박철신 광주교육연구정보원장이 임용됐으며 창의융합교육원장에는 광주효광중 교장 임미옥, 광주교육연구정보원장에 세계민주 시민교육과 고인지 과정이 전보됐다.
이번 인사는 취임 2년을 맞은 이정선 교육감의 정책 추진 동력과 미래 교육에 대비한 전문성 확보에 중점을 뒀다. /윤영기 기자 penfoot@

대한의사협회 식의필 제230620-중-154988호 든든한 척추 튼튼한 관절
첨단우리병원
개원21년의 **첨단우리병원**에서 **건강과 행복을 챙기세요!**
대상포진 폐렴백신 영양수액
백신 냉장고 도입
첨단우리병원 전화문의 062)970-6000 광주과학기술원 첨단 쌍암공원 앞 위치

신협이 활짝 피었습니다
든든한 금융의 힘으로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당신을 평생 어부바하겠습니다
평생 어부바 신협